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 구축

익산시, 도내 최초 전국 6번째 추진 도시미관 개선, 친환경 전기 이륜차 활성화

익산시가 친환경 전기 이륜차 활성화를 위해 도내 최초로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확대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와 KT링크는 지난 31일 정현을 시장과 KT링크스 호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존 노후화된 공중전화부스를 전기 이륜차 배터



리 교환형 충전 인프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연동된 애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해 방전된 배터리와 충전소 내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는 성남시·광주 남구 등에 이어 전국에서 6

번째 도내에서는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시는 도심지역과 시외권 각 1곳씩 선정하고 충전소를 구축해 오는 2023년까지 20곳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해 시민과 함께 하는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24일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저감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라며 "패적인 대기질과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영민 호남본부장은 "익산시와 협력해 전기 이륜차 사용자들을 위해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학교·벤처기업협회 간담회 및 MOU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김삼권)가 우수기술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산학협력협약을 최근 서울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원광대·벤처기업협회, 협약 체결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기술 확보·전문 인력 취·창업 지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김삼권)가 우수기술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산학협력협약을 최근 서울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맹수 총장과 김삼권 회장,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이인호 지회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핵심기술 개발·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협회 회원사로 대학 보유기술 이전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벤처창업 및 벤처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재학생 대상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맹수 총장은 "협약을 통한 기술개발 및 창업 활성화를 대학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벤처기업 인턴십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XR 소재·부품·장비 개발 지원센터 선정 등 고전직인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함께하는 열린 대학으로 가기 위해 힘쓰고, 대학의 미래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협회로부터 벤처 노하우를 배워 대학의 벤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김삼권 회장은 "원광대와 파트너십을 통해 벤처기업의 경쟁력과 기술역량을 높이고, 대학에서 길러내는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995년 설립한 (사)벤처기업협회는 국내 벤처생태계 조성 및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및 판로 개척, 창업문화 조성 및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7개 지회와 해외 51개국 88개 지부를 통해 총 16천여 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보건소, 하절기 위생해충구제 집중 방역

군산시보건소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연기·냄새 없는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집중방역소독 기간(6~9월)동안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방역소독기와 방역약품을 무료 대여 및 지원해 민·관에서의 동시다발적 방역소독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소독 장비 대여신청 접수기간은 6월부터 오는 9월까지이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관리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기 및 위생해충 증가에 따른 불편으로 방역관련 생활민원이 급증하는 하절기를 대비해 친환경 방역방식을 활용해 시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하반기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접수는 1일부터 오는 7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82명으로 공공근로사업 4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9%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이며,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로 1일 6시간(주3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8,720원과 부대미 5,000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은파호수공원 환경정비,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장애인고용공단·장애 성인 직업훈련 활성화 협약

현장훈련·취업 적응 지도

상호 지원·자립 기반 마련

군산시는 지난 3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이하 공단)와 발달장애 성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 성인 직업교육 및 현장훈련과 취업 후 적응 지도에 관해 상호 지원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군산시 발달장애 성인 직업훈련 확대 제

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발달장애 성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대 전북지사장은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현장성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성공적인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직업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자로 볼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한 직업연

계 기회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6월 전국 최초 시 직영으로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개관해 발달장애 성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공단과 관내 성인 발달장애인 취업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 공단 직업훈련 입학 선발 평가 후 3명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추가 희망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육지원 협의체 발족

군산대학교 산학융합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공과학과가 최근 지역사회와 기업체로 구성된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육지원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개최했다.



구 대표, 에이블 최영규 대표이사, 학부모 대표 조은미 학부모, 학생 대표 구다훈 학생회장 및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구성원 등이 참여하였다.

협의체는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육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로써 교육 혁신, 신입생 유치, 대외 홍보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및 소프트웨어학과에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프트웨어학과 이석훈 학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과 및 대학,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육지원 협의체로 인해 군산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실련 김원태 대표, 매거진 군산 이복 회장, 군산시의회 김우민 시의원과 최창호 시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협약서에 서명 및 교환하는 것으로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군산=남영봉 기자

정현을 시장TYM 방문, '기업 소통행정' 실시

정현을 익산시장이 농기계 제조 기업인 (주)TYM을 방문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행정을 펼쳤다.

정 시장은 지난 31일 농기계 제조기업인 (주)TYM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정 시장은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주)TYM은 원광농공단지에서 농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명을 동양물산17업

에서 'TYM'으로 변경했다. 특히 농기계 업계 최초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 도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에서 소형 농기계 수요 급증으로 북미 수출 호조에 따른 매출액이 크게 신장됐으며, 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트래क्टर 2만 대 이상 수출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어려움이 많은 여건에서도 매출신장을 이뤘으며 글로벌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